

## 그들은 어떻게 다른가?: 연애관계와 연애태도에서의 성차와 집단 차이

주 현 덕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 세 니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이번 연구는 이성상대 고르기의 준거로서 여성은 남성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남성은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가장 중시한다고 보는 진화심리학 관점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적 변인들에서의 성차와, 같은 성별 내에서의 집단차를 조사하면서 경제력이 있는 남성과 외모가 뛰어난 여성이 과연 더 많은 연애 경험을 하게 되는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연애관계에서의 공통성을 강조하는 사회구성이론의 관점을 확인하기 위해 연애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인 MALPS를 이용하여, 연애태도에서의 성별에 의한 차이와 같은 성별 내에서의 차이 중 어느 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였다. 128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1의 결과, 경제력이 있는 남성이 조금 더 연애경험이 많았지만, 외모를 높게 평가한 여성의 연애 경험 수는 더 많지 않았고, 오히려 외모가 남성의 연애 경험수와 더 많은 관련이 있었다. 58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2의 결과, 연애 태도에서는 다른 어떤 태도보다 개방성 요인이 연애 경험 수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애 태도에 있어서는 성차보다 같은 성별 내에서의 차이가 더 분명할 것이라는 가설이 개인적 변인의 하부 집단들에서 지지되었다. 기타 개인 변인들 간의 관계와 그에 따른 연애태도의 양상이 보고되었다.

주요어 : 연애태도, 성차, 연애관계, MALPS, 진화심리학, 사회구성이론

---

† 교신저자 : 주현덕,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E-mail : iampiter@empal.com

###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가?

연애 또는 애정관계에서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연애를 해 본 사람과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떤 면이 다른가? 정치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은 연애경험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 누가 더 연애를 많이 하는가? 외모가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어떠한가? 외모에 대한 평가와 외모에 대한 만족도 중에서 어떤 것이 연애 관계에서 더 중요하고, 또 성차가 더 많이 나는가? 여성보다 남성이 성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같은 성별 내에서 성의 중요성에 보다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남녀주도권과 혼전순결의 중요성에 대해 젊은 사람들은 요즘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이런 개인적 변인들은 연애관계의 태도적 특성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가? 즉 연애상태, 연애경험 수, 정치 문화적 성향, 경제적 능력, 외모 평가, 외모만족도, 성을 중요시 하는 정도, 남녀주도권에 대한 판단, 혼전순결의 중요성 부여 등에 따라서 사람들은 연애 태도에서 어떻게 다르고, 이들 개인적 변인에 따른 구분에서 성별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심리학을 배운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 얼마나 답할 수 있는가?

### 연애와 사랑에 대한 연구

사랑의 정체를 알아내는 연구는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다. 최근에 가장 많이 부각된 것은 어릴 적의 애착 유형을 근거로 향후 그 사람의 연애관계를 예측하려는 소위 애착-사랑 연구들이었다(홍대식, 1996; Feenly & Noller,

1990; Hazan & Shaver, 1987; 1990; Kirkpatrick & Davis, 1994; Mikulincer & Nachshon, 1991; Schachner & Shaver, 2004). 우리나라의 연애와 남녀관계에 대한 연구들도 애착(유형)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강진경, 정태연, 2001; 권아현, 2000; 김나리, 2001, 김광은, 이위갑, 2005; 김정민, 장은주, 박광배, 1991; 장휘숙, 2002). 애착-사랑 연구는 유아기의 애착 유형이 단순하여 성인의 연애관계에 담긴 포괄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애착-사랑 이론의 인과적인 예측은 실제로 그 인과관계가 유사하게라도 입증된 바가 없고(Tzeng, 1992), 이론적으로도 유아기 애착이 성인기 애정관계를 결정한다는 가설 자체가 비약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Harris, 1999).

호감과 매력이 형성되고, 그것이 관계발전으로 이어져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홍대식의 ‘연애와 결혼의 심리학(2002)’에 따르면,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하는 사랑이라는 관계에 대한 연구는 간단한 요인을 설명하는 것에서 보다 복잡한 요인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호감과 매력에 대한 이론들 중에서 우선 강화(reinforcement)의 역할을 강조한 이론들은 타인과 관련된 경험에서의 보수(보상)가 그 사람에게 대한 매력을 일으킨다고 가정한다(홍대식, 2002).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관계에서의 보상과 손실에 중점을 두는 이론들도 있다(홍대식, 2002; Sedikides, Oliver, & Campbell, 1994). 그리고 상호의존이론(interdependence theories)에서는 이런 ‘보상 - 손실’만이 아니라, 가정될 수 있는 대안적 관계에 대한 의존성에 의해 어떤 관계에서의 성과와 관계지속이 설명된다

(Drigotas & Rusbult, 1992; Surra & Longstreth, 1990). 반면, 투자모형(investment model)에서는 ‘관계몰입’이 가정되고, “만족 - 대안관계 비교 수준 + 투자”의 공식이 성립된다. 형평이론(equity theories)에서는 관계에서의 자신의 성과와 상대방의 성과를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이훈구, 2002; Berg & McQuinn, 1986; Gabriel & Garner, 1999).

호감 형성 이후의 장기적 관계의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두는 이론들이 있으며, 진전에 따른 관계의 변화 양상과 관계 결정의 중요 요인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한다(홍대식, 2002). 사회적 침투이론에서는 관계 발전의 중요 요인으로 의사소통의 친밀성을 중시하며, 안정적 관계일수록 파트너들이 자연스럽게 풍부한 상호작용을 행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Aron, Aron, Norman, & McKenna, 2000), 이는 애정관계에서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A. T. Beck(1988)의 설명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에 비해 이성간의 관계, 특히 배우자 선택에 관련해서 각 관계의 각 단계에서 상이한 ‘고르기 근거’가 사용된다고 가정하고 그 요인들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다(홍대식, 2002; Feingold, 1992). 근접성, 상호매력, 사회적 배경의 유사성, 태도와 가치의 유사성, 상호보완적 성격, 결혼의 준비상태 등이 여과망이 되어 상대를 고르게 된다고 한다(Pines, 1999). 관계 발전에 관한 이론들은 파트너의 조화성 검증에 의해서 배우자 선택이 일어나며, 성격, 가치, 역할 및 인구학적 특징들에서 파트너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시사한다. 사람들은 분명 자기와 비슷한 태도와 특징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데(Aronson, 1999; Byrne & Smeaton, 1986;

Byrne & Murnen, 1988; Condon & Crano, 1988; Kurdek, 1993; Surra & Longstreth, 1990), 이 유사성에서는 인구학적 변인들, 성격, 태도와 가치, 신체적 매력의 유사성이 중요하게 된다(Condon & Crano, 1988; Feingold, 1992; 1988; Gangestad, Thornhill, & Yeo, 1994; Jones, Pelham, Carvallo, & Mirenberg, 2004; Kalick, 1987; Kurdek, 1993; Langlois, 1994; Mathes & Kahn, 1975; Surra & Longstreth, 1990; Townsend, 1998).

연애태도의 파악은 연애 당사자 자신과 애인의 유사점과 상보성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제공하며, 애정관계의 시작과 유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에도, 연애태도에 대한 연구는 흔치 않으며, 개인변인에 따른 연애태도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 성차와 유사성에 관한 논의들

남녀관계 또는 애정관계에서 성차에 관한 여러 논의는 성차를 중시하는 진화심리학적, 정신역동적 관점과 남녀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사회구성이론의 양측으로 나눌 수 있다(Pines, 1998).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진화심리학에서는 이성상대 고르기에서 가장 중요한 준거로서 여성은 남성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남성은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가장 중시하며, 이런 선호의 차이가 여러 문화에서 보편적일 뿐 아니라,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한다(홍대식, 1998; 2002; Barash & Lipton, 2001; Buss & Barnes, 1986; Buss, 1994; 2000; Diamond, 1997; Dion & Dion, 1973; 1975; Feingold, 1992; Fisher, 1994; 1999; 2004; Greitemeyer, 2005; Miller, 2000; Pines, 1999; Townsend, 1998). 반면 사회구성이론(Social Construction Theory)에서는 연애관계에서 남녀

의 차이보다 유사성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DeLamater & Hyde, 1998; Kenrick et al., 1993; Pines, 1998). 남녀는 흔히 생각되는 것처럼 서로 다르지 않으며,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보다 안정적이고, 관계에 충실하며, 성적으로 배타적인 관계를 더 추구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한다(Cochran & Peplau, 1985). 양성 모두 이성으로부터 이해심, 따뜻함, 민감성과 유머 감각을 추구하며, 친밀감과 관련된 특성들을 공통적으로 중시한다고 설명한다(Pines, 1998). 이 관점에 의하면 ‘애정관계에서의 성차의 강조’는 고정관념에 의한 것이고, 과도하게 단순화된 인식의 산물인 것이다(Tavris, 1992). 사회구성이론에서는 성차보다는 같은 성별 내에서의 차이에 주목하며, 이 차이에 대해 문화적인 영향과 직접적인 상황 변수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가정되는(DeLamater & Hyde, 1998) 진화론적 설명과 사회구성이론의 설명은 연애 태도에 관한 서로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사회구성이론에서 남녀가 이성 관계를 통해 공통적으로 추구한다고 하는 이해심, 따뜻함, 친밀감 등과 관련된 요인들에 해당하는(Pines, 1999), “친절함과 배려”가 연애상대 선택에서 확고한 성차를 주장하는 진화심리학의 대표적인 연구 결과에서도 잠재적 연애 대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양성 모두에게 중시됨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Buss & Barnes, 1986). 또한 진화심리학에서 중시하는 ‘더 나은 후손 남기기’ 조건은 자원의 소유 유무 자체만이 아니라, 자원 제공의 적극적인 의도, 즉 상대를 더 많이 배려하는 태도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Pines, 1998; 1999). 이성 상대의 선택의 여과이론(filter theory)에 따르면 연애 관계가 진전할수

록 연애 상대의 조화의 요인으로서 태도의 역할이 증가하게 된다(홍대식, 2002; Condon & Crano, 1988; Pines, 1999; Surra & Longstreth, 1990). “대인간의 매력에 관심을 둔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어떤 사람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조사함(Berscheid & Walster, 1969)”에도 연애태도 자체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태도의 유사성이 다른 요인들의 유사성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때, 연애 태도 자체에 대한 이해는 남녀관계의 여러 양상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을 보다 많이 제공해줄 것이다. 또한 비슷한 조건의 배우자 후보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즉 이미 여과과정을 통해서 연애 대상이 이미 걸러진 상황의 선택에서는 이 연애태도가 양성 모두에게 그 어떤 변수보다 직접적인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연애 상대가 우호적이고 관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은 남녀 모두가 바랄만한 것이며, 자신이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것은 이성에게 호감을 주는 장점이 될 것이다. 사회구성이론의 주장처럼 남녀가 이성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에서 같은 점이 있다면, 연애 태도에 있어서 서로 달라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연구자들은 연애태도에서는 성차가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현덕과 장근영(2005)이 만든 연애태도 척도인 MALPS를 사용하여 개인적 변인에 따른 연애태도의 집단 차와 성차를 확인해보기로 하였다.

## 연구 목적

연구1을 통해서 먼저 진화론적 심리학의 이

성 상대 선택의 성차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고자 한다. 즉, 외모가 뛰어난 여성과 경제적 능력이 있는 남성이 과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연애 경험을 하게 되는가를 확인할 것이다(가설1). 이와 함께 여러 개인적 변인들에 의한 집단 차와 성차의 다양한 양상을 알아볼 것이다. 예를 들어 연애 경험수가 많아질수록 성을 중시하게 되며, 혼전순결을 중시하는 정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2에서는 연애태도 척도인 MALPS를 이용하여 연애관계에서의 태도를 확인하면서 어떤 요인이 연애관계 수와 더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MALPS의 다정함, 유사성, 집중성, 허용성, 유능함 요인에서 자신을 높게 평가해서 보다 바람직한 연애 대상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주현덕, 장근영, 2005)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연애경험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가설2). 또한 다른 요인들에 비해 보다 가치중립적인 개방성 요인의 경우, 연애 태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외향적이고 진보적인 면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런 태도가 새로운 연애관계를 만드는 데에 더 유리할 것임으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의 연애 경험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한다(가설3).

끝으로 연애관계 태도의 측정에서는 연애상태 여부, 연애관계(경험) 수, 정치문화 성향, 경제력, 외모평가, 외모만족도, 성의 중요시, 남녀주도권, 혼전순결중시 등의 개인 변인들에 의해서 구분되는 하위집단들에서 성별에 의한 차이보다 같은 성별 내에서의 차이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하였다(가설4).

가설들을 증명하는 것 이외에도 이번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에 대한 자세한 결과를 보고하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연애와

관련된 태도와 의식의 차이 조사의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이후의 연구들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연구 1: 개인 변인에 의한 집단 차와 성차

개인적 변인(personal variables)인 ① 연애상태 여부(장기 없음, 단기 없음, 연애 중), ② 연애 경험 수, ③ 정치문화적인 보수-진보성, ④ 경제적인 능력, ⑤ 외모와 ⑥ 외모만족도, 그리고 성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⑦ 성의 중요성, ⑧ 남녀관계에서의 주도권, ⑨ 혼전순결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집단을 나누고, 각각의 하위집단에서 다른 변인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고, 개인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면서 연애 경험의 수와 외모, 경제적 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총 1283명(남자: 692명, 여자: 591명)이 대상이었다. 연령은 평균 21.2세(만17세-30세)이며, 93.8%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이었다. 대학생들의 경우는 Y대학교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1037명)이 주를 이루며, 경기도 부천의 영어학원의 수강 대학생들(172명)과 일반인 수강생들(49명)이 대상이 되었다. 그 외에 Y대학교 대학원생들(25명)이 포함되었다.

측정도구와 절차

5점 척도로 구성된 정치 문화적 성향(보수-중도보수-중립-중도진보-진보), 경제적인 능력(하-중하-중-중상-상), 외모의 평가(하-중하-중-중상-상), 외모만족도(불만족-약간 불만족-보통-대체로 만족-아주 만족), 성의 중요성(전혀 안 중요-별로 안 중요-보통-다소 중요-매우 중요), 남녀주도권(전적 남자 주도-주로 남자 주도-서로 비슷하게 주도-주로 여자 주도-전적 여자 주도), 혼전순결의 중요성(전혀 안 중요-별로 안 중요-약간 중요-상당히 중요-매우 중요)의 항목을 완성하게 하였다. 또한 연애 관계 경험 수(나중에 0명/ 1-2명/ 3-4명/ 5명 이상으로 구분함)와 성별, 학력, 연애 상태(장기(6개월 이상) 애인 없음, 단기 애인 없음, 단기(3개월) 애인 있음, 장기 애인 있음, 기혼)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결 과

전반적인 차이

성차에 대해서는 *t*검증을, 집단 간 차이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했으며, 이원분산분석(factorial ANOVA)을 통해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5점 척도에 의해 구분된 개인 변인들에 의한 하위 집단들을 각각 상중하에 해당되는 3단계로 단축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5단계 중 양극에 해당되는 사람의 수가 적은 경우가 많았고, 결과의 분석에서 상중하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는 권고를 따른 것이다.

성차

우선 가장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성의 중요성과 혼전순결을 중요시하는 변인이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식적인 결과가(Leigh & Aramburu, 1996) 나타났고, 반대로 혼전순결의 중요성은 여성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연애관계 수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애정애착(romantic attachment)를 경험한다는 Dion과 Dion (1975)의 설명과는 좀 다른 결과이다. 한편 여성들이 자신의 경제력을 남성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에서도 여성이 남성들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평가했다(표 1).

집단 간의 차이

경제력이 높을수록 연애관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F(2, 1281)=3.74, p<.03$ , 남성과,  $F(2, 689)=2.64, p<.08$ , 여성으로,  $F(2, 588)=1.68, p=ns$ , 구분하면 양성 모두 경제력 수준

표 1. 개인적 요인의 성차

	남성		여성		<i>t</i> <sup>a</sup>
	<i>M</i>	<i>SD</i>	<i>M</i>	<i>SD</i>	
정치문화성향	3.14	1.09	3.14	.92	ns
경제적 능력***	3.26	.84	3.44	.72	-4.09
연애관계수	2.39	1.30	2.29	1.22	ns
외모평가***	3.16	.81	3.32	.66	-3.98
외모만족도	3.07	.94	3.01	.95	ns
성의 중시***	3.79	.88	3.42	.95	7.27
남녀주도권	2.69	.53	2.66	.55	ns
혼전순결중시***	2.80	1.02	3.30	1.12	-8.39

주. a (-)는 여성의 평균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p<.001$  level.

에 의한 집단 간의 연애경험 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외모 평가의 경우에는, 외모를 높게 평가한 집단이 연애경험 수가 더 많았으나,  $F(2, 1281)=18.37, p<.001$ , 외모를 높게 평가할수록 연애 경험 수가 많은 것은 여성보다,  $F(2, 588)=5.29, p<.01$ , 오히려 남성 쪽이었다,  $F(2, 689)=15.93, p<.001$ . 상관분석 결과에서 보면 연애관계 수와 경제적 능력은 남성에서 약한 정적 상관( $r=.100$ )이 나타났을 뿐이고, 여성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애관계 수와 외모 평가의 상관에서는 양성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여성보다( $r=.134$ ) 남성에서( $r=.192$ ) 더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표 2). 하지만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 연애관계수에 대한

표 2. 연애관계수, 외모, 경제력의 성별 적률상관

	변인	연애관계수	외모 평가
남성	외모 평가	.192**	
	경제력	.100**	.242**
여성	외모 평가	.134**	
	경제력	.060	.221**

\*\*  $p<.01$  level

표 3. 연애관계수에 외모,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 중다회귀분석표( $N=1281$ )

	변인	R <sup>2</sup>	B	β
남성 ( $N=691$ )	외모 평가	.040	.286	.177***
	경제력		.090	.058
$F(2, 688) = 14.12***$				
여성 ( $N=590$ )	외모 평가	.019	.234	.127**
	경제력		.055	.032
$F(2, 588) = 5.72**$				

\*\*  $p<.01$ , \*\*\*  $p<.001$

외모와 경제력의 설명 변량은 아주 적은 것이어서, 연애관계수를 결정하는 데에는 그 외의 다른 여러 요인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표 3).

### 연애상태에 따른 차이

#### 집단 간의 차이

6개월 이상 연애관계가 없는 사람이 574명(44.9%), 6개월 이하 연애관계가 없는 사람이 225명(17.5%), 연애 중인 사람 482명(37.6%)으로 집단을 3분하였다. 남성의 경우, 장기 애인이 없는 사람보다 애인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들이 경제적 능력이 더 높게 평가했다,  $F(2, 689)=8.04, p<.001$ . 장기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남녀 모두 애인이 있었거나 있는 집단보다 연애 경험 수가 훨씬 적었다,  $F(2, 1281)=89.66, p<.001$ . 가장 연애 경험 수가 많은 집단은 단기 애인이 없는 여성이었다. 애인이 있는 집단, 단기 없는 집단, 장기 없는 집단 순으로 외모 수준을 평가했고,  $F(2, 1281)=23.15, p<.001$ , 외모 만족도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F(2, 1281)=14.20, p<.001$ . 애인이 있는 사람들은 성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F(2, 1281)=10.65, p<.001$ , 장기적으로 애인이 없는 사람들이 혼전순결의 중요성을 유의미하게 높게 평가하였다,  $F(2, 1281)=3.76, p<.03$ .

#### 성차

연애 상태에 의한 성차는 기본적인 성차가 그대로 반복되었다. 그 외에 장기 애인이 없는 집단의 여성이 경제력을 남성보다 높게 평가하였고,  $t(574)=-3.75, p<.001$ , 반면 연애관계수는 남성보다 더 적다고 보고하였다,  $t(574)=2.62, p<.01$ . 외모는 애인이 있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평가했다,  $t(480)=-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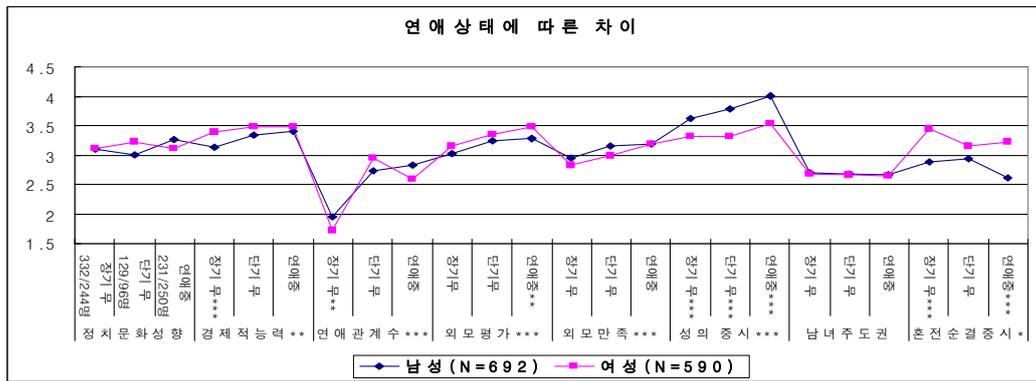


그림 1. 연애상태에 의한 차이

주) 집단명에 붙은 \*는 성차의 유의미성을 의미하며, 요인명에 붙은 \*는 각 하위집단 간의 차이의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정치문화성향은 높을수록 진보적이며, 남녀주도권은 낮을수록 남성주도권을 의미한다.  
\*  $p < .05$ , \*\*  $p < .01$ , \*\*\*  $p < .001$

$p < .002$ . 성의 중요성은 모든 집단에서 남성의 평가가 높았다. 혼전순결의 경우, 장기 애인이 없는 집단과,  $t(502) = -6.43, p < .001$ , 애인이 있는 집단에서는,  $t(473) = -6.22, p < .001$ , 성차가 분명하게 나타났지만, 단기 애인이 없는 집단에서는 성차가 드러나지 않았다.

험(관계) 변인에서만 성별과 연애상태의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  $F(2, 1282) = 3.29, p < .04$ .

연애 경험 수에 의한 차이

집단 간의 차이

참가자들의 나이(평균 연령 만 21.2세)가 어려서 연애 경험이 없거나(21.1%) 제한적이었다(1-2명: 47.6%). 경제력에서는 남성 집단들 간

연애 상태 X 성별의 상호작용  
이원분산분석(factorial ANOVA) 결과, 연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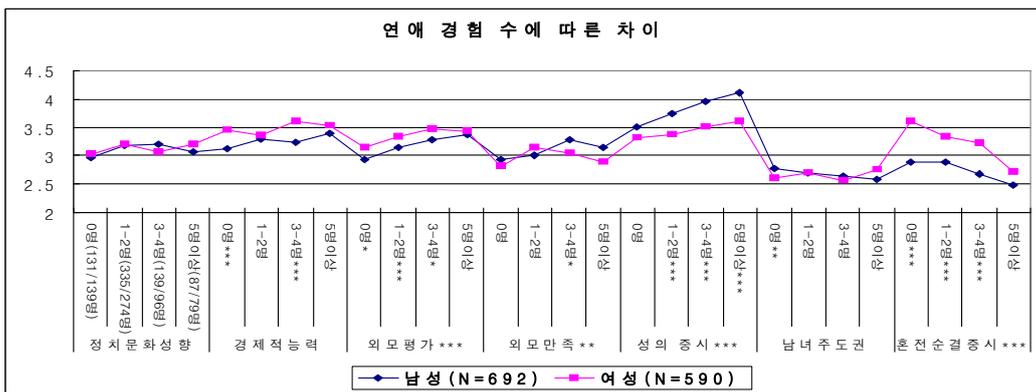


그림 2. 연애경험 수에 의한 차이



( $M=2.31$ )보다 많았다.

남녀주도권에 있어서 보수 집단이 더 남성이 더 주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F(2, 1281)=4.96, p<.01$ , 이는 여성의 생각이 주로 반영된 것이다,  $F(2, 588)=3.75, p<.03$ . 혼전순결의 중시에서는 정치 문화적 성향에 따른 집단 차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다,  $F(2, 1281)=24.78, p<.001$ . 진보적인 사람이 혼전순결을 훨씬 덜 중시했고, 여성보다,  $F(2, 588)=5.94, p<.003$ , 남성들에게 이런 판단이 더 뚜렷하다,  $F(2, 689)=22.45, p<.001$ . 연애관계수나 성의 중요시 정도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차**

정치 문화적 집단 내에서의 성차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성차가 그대로 반복되었다.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이**

**집단 간의 차이**

5단계 구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력을 중간(45.8%)이나 중상(37.3%)으로 평가하였다. 여성의 경우 중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43.8%: 31.6%). 하(1.5%)와 중하(10.1%)를 다시 하로, 중상과 상(5.2%)을 상으로 묶어 상중하의 3단계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경제력을 높게 평가한 집단이 더 보수적이었으며,  $F(2, 1280)=3.30, p<.04$ , 주로 여성의 평가에 의한 결과이다,  $F(2, 587)=3.33, p<.04$ . 경제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연애관계수가 많았고,  $F(2, 1280)=3.74, p<.03$ , 남녀 모두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도 유의미하게 높게 평가하였으며,  $F(2, 1280)=30.17, p<.001$ , 외모만족도도 높았다,  $F(2, 1280)=8.47, p<.001$ . 성을 중시하는 정도,  $F(2, 1280)=4.10, p<.02$ , 그리고 남녀주도권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F(2, 1280)=4.92, p<.007$ , 경제력이 있는 남성들이 관계에서 남성이 더 주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

경제적 능력에 의해 나뉜 집단에서는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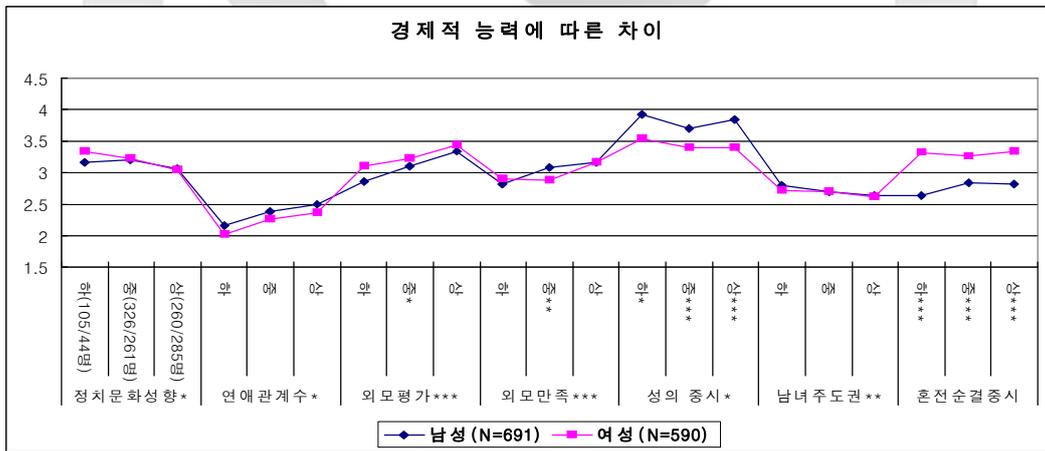


그림 4. 경제적 능력에 의한 차이

차가 덜 분명하게 나타났다. 경제력 중간집단에서만 남성보다 여성이 유의미하게 외모를 높게 평가하였고,  $t(586)=-2.12, p<.05$ , 외모만족도는 반대로 더 낮았다,  $t(548)=2.71, p<.007$ . 성의 중요성과 혼전순결 중시에서는 기본적인 성차가 반복되었고, 남녀주도권에서의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4).

자기 외모 평가에 의한 차이

집단 간의 차이

설문 대상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외모를 중간이나 중상으로 평가하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외모를 높게 평가하였다(그림 5). 외모를 높게 평가한 집단이 경제력의 평가도 높았다,  $F(2, 1281)=40.56, p<.001$ . 연애 상대로서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Nicotera, 1997) 외모가 좋은 집단이 연애 경험의 수도 많았으며,  $F(2, 1281)=18.37, p<.001$ , 이런 경향은 남성에게서 두드러졌다. 외모가 좋은 집단이 외모만족도도 높았지만,  $F(2, 1281)=204.75, p<.001$ , 외모 평가와 만족도의 높은 상관( $r$ )은 절대적

인 것은 아니어서( $r=.518, p<.001$ ), 외모평가와 외모만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Umberson, & Hughes, 1987). 그리고 외모평가가 높은 집단이 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1281)=14.20, p<.001$ .

성차

성의 중요성과 혼전순결 중시에서의 기본적인 성차 외에 다른 변인에서의 성차는 분명하지 않았다. 외모 중간 집단에서 여성이 경제적 능력을 더 높게 평가했지만,  $t(717)= -2.45, p<.008$ , 외모 만족도에서는 남자가 더 높았다,  $t(698)=3.39, p<.001$ . 그리고 외모를 높게 평가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애경험 수가 더 많다고 평가하였다,  $t(411)=2.22, p<.03$ .

외모만족도에 따른 차이

집단 간의 차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아주 만족하거나(3.6%), 아주 불만족하는 사람들은(2.9%) 그리 많지 않고, 다소 불만족하거나(30%) 보통(30.6%), 다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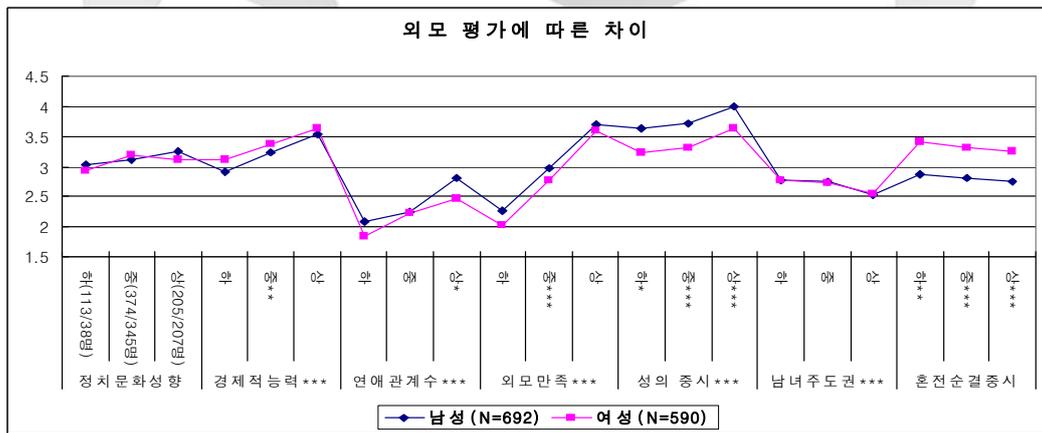


그림 5. 자기 외모 평가에 의한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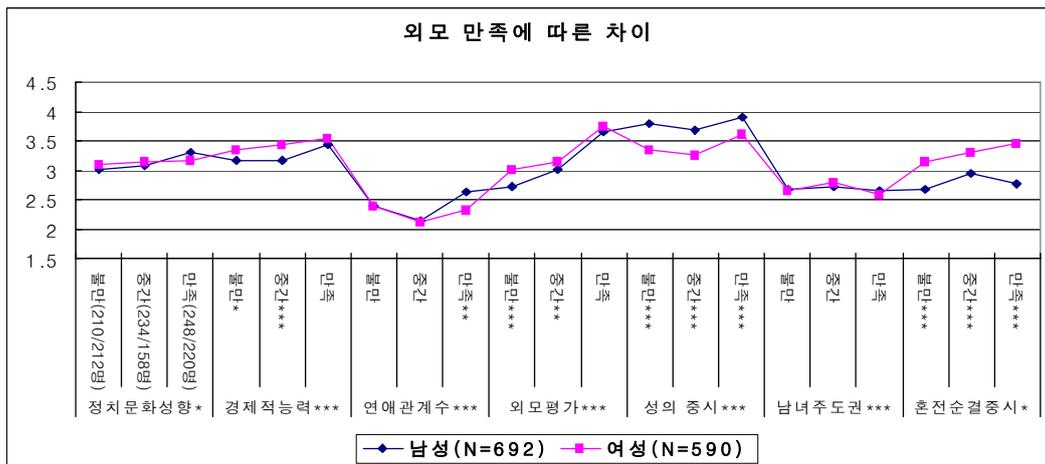


그림 6. 외모만족도에 의한 차이

만족하는 사람이(33%) 대부분이며,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경제력에서는 양성 모두에서 분명한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외모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경제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F(2, 1281)=11.46, p<.001$ . 외모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연애 경험수가 더 많았고,  $F(2, 1281)=8.47, p<.001$ , 이는 여성보다,  $F(2, 588)=2.22, p=ns$ , 남성 집단 간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이다,  $F(2, 689)=8.67, p<.001$ .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성을 더 중시했고,  $F(2, 1280)=9.52, p<.001$ , 이런 집단차는 여성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F(2, 588)=7.83, p<.001$ . 하지만 외모만족도가 높은 여성은( $M=3.46$ ) 동시에 외모만족도가 중간과 하에 해당하는 여성들보다(각각  $M=3.13/3.29$ ) 혼전순결도 더 중시했는데,  $F(2, 588)=4.64, p<.01$ , 이는 남성과는 반대되는 양상이다.

**성차**

기본적인 성차가 거의 반복되었다. 그 외에 외모 만족이 높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연애경험 수를 나타냈으며,  $t(454)=2.61, p<.01$ , 외모만족도 자체도 유의미하게 높았다,  $t(456)=2.11, p<.04$ . 외모만족 집단에서는 혼전순결 중시에 대한 판단에서 남자( $M=2.76$ )와 여자( $M=3.46$ )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t(461)=-7.04, p<.001$ .

**성의 중요성에 따른 차이**

**집단 간의 차이**

연애관계에서 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는 약간 중요(43.4%), 보통(27.1%), 아주 중요(16.2%)순이었고, 별로 안 중요(12.1%), 전혀 안 중요(1.0%)의 평가 비율은 낮았다. 성을 약간 중요하다( $M=3.26$ )고 여긴 남성들은 보통 이하( $M=3.03$ )나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M=3.03$ ) 남성보다 더 유의미하게 정치적으로 진보적이었다,  $F(2, 689)=3.81, p<.03$ . 성을 중시하는 집단이 연애경험 수가 더 많았고,  $F(2, 1279)=23.62, p<.001$ , 남성 집단들의 차이도 분명하였다,  $F(2, 689)=22.30, p<.001$ . 성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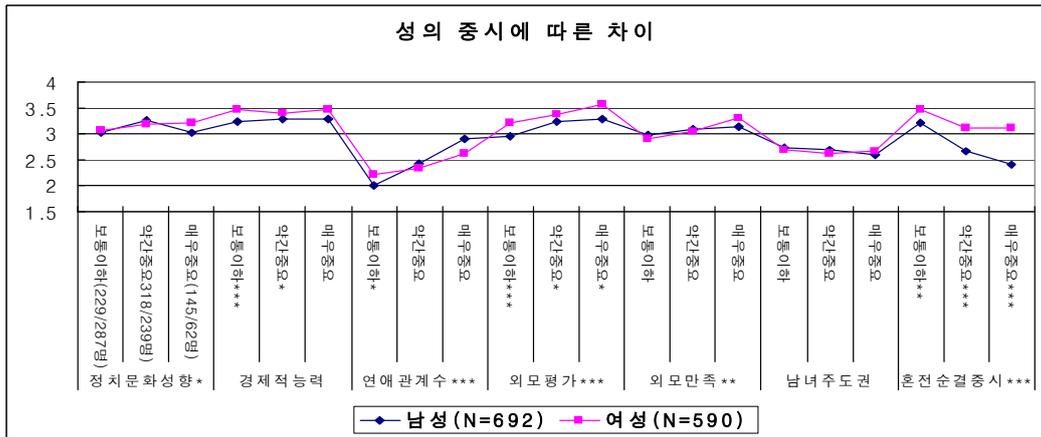


그림 7. 성의 중시에 의한 차이

시하는 집단이 외모평가도 더 높게 했고,  $F(2, 1279)=14.48, p<.001$ , 외모만족도도 높았다,  $F(2, 1281)= 6.33, p<.002$ . 혼전 순결을 중시하는 태도는 집단 간의 차이가 크며,  $F(2, 1281)=44.24, p<.001$ , 성의 중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데, 그 상관의 정도는 여성보다( $r=-.198, p<.05$ ) 남성에서 더 분명했다( $r=-.332, p<.001$ )(표 2 참조).

### 성차

성을 아주 중시하는 집단에서는 경제력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 중시 보통 이하 집단에서 여성( $M=2.21$ )이 남성보다( $M=2.01$ ) 많은 연애 경험수를 보고한 반면,  $t(512)=-2.23, p<.03$ , 비록 유의미하지 않지만 성을 매우 중시하는 집단에서는 남성( $M=2.90$ )이 여성( $M=2.62$ )보다 더 많은 연애 경험수를 보고하였다(그림 7).

### 성의 중요성 X 성별의 상호작용

이원분산분석(factorial ANOVA) 결과, 연애 경험 수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F(2, 1280)$

$=3.22, p<.04$ .

### 혼전순결 중시에 의한 차이

#### 집단 간의 차이

정치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 혼전순결을 더 중요시하였다,  $F(2, 1281)=27.42, p<.001$ . 혼전순결의 중시는 성의 중시, 연애 경험 수와 부적 상관을 보이며, 연애 경험 수에서는 여성의 상관( $r=-.224$ )이 남성보다( $r=-.132$ ) 높다,  $F(2, 1281)=15.66, p<.001$ . 그리고 혼전순결 중시 여성 집단에서 외모만족도가 더 높았다,  $F(2, 588)=4.30, p<.01$ . 혼전순결을 덜 중시하는 집단에서 성을 더 중시하였고,  $F(2, 1281)=55.20, p<.001$ , 남녀 주도권에 있어서는 혼전순결을 중시하는 여성 집단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집단들보다 남성이 더 주도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F(2, 588)=7.30, p<.001$ .

### 성차

혼전순결을 중시하는 집단의 남성이 여성보다 더 보수적이지만,  $t(282)=-3.20, p<.002$ , 연

에 경험 수는 좀 더 많았다,  $t(414)=2.17, p<.04$ . 여성들이 경제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반복되었지만, 혼전순결 중시 집단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혼전 순결을 중시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성의 중시에서 분명한 성차가 나타났으나, 혼전순결 중시 집단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아서 일반적인 성차의 패턴과 달랐다. 그리고 혼전순결을 중시하는 집단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애 관계에서 남성이 더 주도적이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t(339)=2.12, p<.04$ .

### 연구 2: 개인적 변인에 의한 차이와 자신의 연애 태도(MALPS) 평가

개인적 변인들에 의해 구분되는 집단에서 연애태도의 성차와 집단 간의 차이 중 어떤 것이 더 두드러지는가와, 어떤 연애태도 요인이 연애관계 수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연구1의 대상자 중에서 592명(남자: 329명, 여자: 2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MALP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확인된 것이 2005년 1학기말이어서, 여름학기 이후의 학생들과 피험자들에 대해서만 MALPS를 실시할 수 있었다. 연령은 평균 20.7세이며, 97.0%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의 학력이었다. 대학생들의 경우는 Y대학교의 심리학 개론 해

당과목의 수강생들이 주를 이룬다.

#### 측정도구와 절차

연구1의 설문 외에 주현덕과 장근영(2005)이 개발한 연애에 관한 태도 척도인 “연인으로서의 나 척도(MALPS)”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게 하였다. 척도 사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1요인”으로서<sup>1)</sup> 이번 연구에서는 ‘성적 만족’을 추가하여 총 25쌍의 분석(척도)에 채점하게 하였다(부록 참조).

#### MALPS: 연인으로서의 나(내 애인) 척도: Me (My Partner) As a Love Partner Scale(MALPS)

MALPS는 연애 상대로서 서로가 적합한가를 확인하고 연애 관계에서 상대방의 연애 태도에 대한 만족과 불만의 원인을 찾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Osgood, Suci와 Tannebaum의(1958) 의미론적 차별법(意味分尺, semantic differentials)을 이용해서 만든 연애 태도 척도이며, 9점 척도의 서로 반대되는 형용사 쌍에 심리적 대상에 대한 느낌을 표시하게 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의 방향과 강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척도(분척)이다(Tzeng, 1993). 다정함, 유사성, 집중성, 허용성, 유능함, 개방성의 6개 하위요인, 각 4개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애관계 만족도를 예측하는 양호도가 확인되었다.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① 다정함 요인은 로맨틱하고, 다정하며, 성격이 원만하고 자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② 유사성 요인은 상대가 나와 비슷하고, 수준이 맞으며, 동질적이고, 만족스럽다는 것을, 그리고 ③ 집중성 요

1) 상담 현장에서 사용될 경우, 내담자의 특성의 파악에서 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은 관계에 열중하며, 진지하고, 헌신적이며, 성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허용성은 너그럽고, 포용적이며, 이해심 많고, 상대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을, ⑤ 유능함의 요인에서는 능력이 있고, 독립적이며, 똑똑하고, 합리적인 것을 의미하며, ⑥ 개방성 요인은 보다 외향적이고, 진보적이며,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37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4에서 .80을 기록했으며, 107명을 대상으로 한 3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7에서 .81로 나타나서 정의적 척도에 요구되는 .70의 기준에(Gable & Wolf, 1993) 거의 부합한다.

## 결 과

### 전반적 결과

MALPS의 검사 결과의 경우,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성차를 확인할 경우에는 요인4인 허용성에서만 남성이 더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서,  $t(586)=3.11, p<.01$ , 남성이 자신을 더 포용적이고 이해심이 많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연애 태도에 있어서 성차가 뚜렷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4는 지지되었는데, 이를 더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에 따른 태도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전체적으로는 남성의 점수가 높게 나와서 남성이 여성보다 자신의 평가에 더 후한 경향이(Pronin, Kruger, Savitsky, & Ross, 2001) 나타났다.

연애상태에 따른 연애 태도 차이

### 집단 간의 차이

연애상태(장기 애인 없음, 단기 애인 없음, 연애 중의 3단계로 축소하였음)에 따라 MALPS의 요인은 허용성을 제외하고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그림 8).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연애중인 사람들에 비해 다정함과,  $F(2, 590)=11.13, p<.001$ , 유사성의 요인이,  $F(2, 590)=7.93, p<.001$ ,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집단차는 남성에게서 더욱 분명하였다. 애인이 없는 집단과 현재 연애중인 집단은 성적만족에서 아주 차이가 나는데,  $F(2, 590)=20.90, p<.001$ , 여성 집단 간의 차이가 더 뚜렷했다. 집중성에서 남성은 집단차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 단기 애인이 없는 집단이 ( $M=5.63$ ) 장기 애인 없음( $M=6.08$ )과 연애 중인 집단( $M=6.55$ )보다 자신의 집중성을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했다,  $F(2, 260)=7.37, p<.001$ . 허용성에서는 여성 집단 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났고,  $F(2, 260)=3.15, p<.05$ , 단기 애인 없는 여성이 가장 낮았는데, 이 집단은 유능함에서도 다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평가를 하였다,  $F(2, 260)=5.45, p<.005$ . 반면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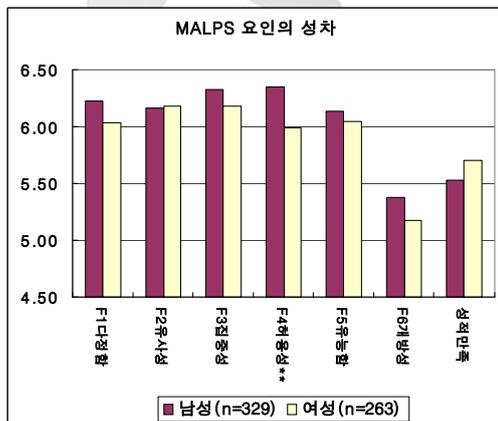


그림 8. 연애 태도에서의 성차

표 4. 개인적 변인들과 MALPS 요인과의 적률상관(r)

	다정함	유사함	집중성	허용성	유능함	개방성	성적 만족
정치문화 성향	0.066	0.028	-0.015	0.072	0.047	0.235**	0.033
경제적 능력	0.137**	0.128**	0.091*	-0.008	0.120**	0.033	0.088*
연애경험 수	0.113**	0.039	0.026	0.018	0.138**	0.345**	0.118**
외모 평가	0.147**	0.178**	0.046	0.075	0.215**	0.120**	0.088*
외모 만족도	0.211**	0.256**	0.116**	0.154**	0.200**	0.159**	0.171**
성의 중요성	0.084*	0.085	0.033	0.009	0.040	0.285**	0.157**
남녀주도권	-0.127**	-0.028	-0.023	-0.007	0.007	-0.038	-0.054
혼전순결 중시	0.084*	0.091*	0.111**	0.025	0.005	-0.295**	-0.053

\*  $p < .05$ , \*\*  $p < .01$  level.

방성은 단기 애인 없는 여성이 다른 모든 집단들보다 더 높았으며,  $F(2, 260)=10.83, p < .001$ , 남성의 경우에는 연애중인 집단, 애인이 있었던 집단, 장기적으로 애인이 없는 집단 순으로 개방성이 높았다,  $F(2, 326)=11.97, p < .001$ . 이를 통해 연애 관계에 있어서 개방적인 태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

### 성차

장기 애인이 없는 집단과 애인이 있는 집단에서는 어떤 개인적 변인에서도 태도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과 현재 연애중인 사람들의 연애 태도에서의 차이가 남녀 간의 태도차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단기 애인 없음 집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허용성,  $t(111)=2.65, p < .01$ , 유능함,  $t(111)=2.56, p < .02$ , 개방성 요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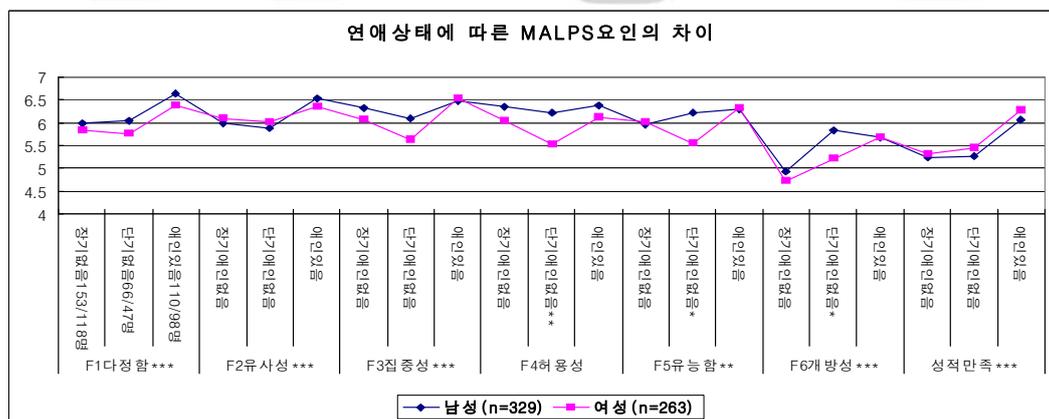


그림 9. 연애상태에 따른 태도의 차이

$t(111)=2.17, p<.04$ , 낮은 평가를 내렸는데, 이는 단기 애인 없는 여성들이 자신을 덜 포용적이고, 유능하지 않으며, 덜 개방적이거나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애경험 수에 의한 연애 태도 차이

집단 간의 차이

연애경험 수가 많은 남성이 다정함을 높게 평가하였다,  $F(2, 326)=3.97, p<.01$ . 유능함의 요인에서도 연애경험 수가 많은 남성의 점수가 높았다,  $F(2, 326)=6.19, p<.001$ . 여성의 경우, 개방성의 요인에서만 연애 경험 수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연애 경험이 많은 집단이 남성과,  $F(2, 326)=28.82, p<.001$ , 여성에서,  $F(2, 260)=11.82, p<.001$ , 모두 높은 개방성을 나타냈다. 연애경험의 증가는 성적 만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589)=2.76, p<.05$ . 이를 종합해 볼 때, 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안하는 사람이나,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사람 차이는 개방성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성적으로 개방적이며, 외향적이고,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이 개방성이 연애

표 5. 연애관계수에 대한 MALPS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 중다회귀분석표(N=592)

변인		R <sup>2</sup>	B	β
남성 (N=331)	개방성	.116	.062	.309***
	유능함	.140	.040	.153**
$F(2, 323) = 26.09***$				
여성 (N=261)	개방성	.116	.074	.369***
	집중성	.134	-.029	-.135*
$F(2, 259) = 19.82***$				

\*  $p<.05$ , \*\*  $p<.01$ , \*\*\*  $p<.001$

경험 수에서 중요한 태도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개방성 이외에도 유능함 요인이, 여성의 경우에는 집중성 요인이 연애 경험 수에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 연애관계수에 대한 각 태도요인들과 MALPS의 점수의 합의 영향력을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으로 알아본 결과(표 5), MALPS의 요인 점수가 높아서 바람직한 연애 태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이(주현덕, 장근영, 2005) 반드시 더 많은 연애 경험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가설2는 지지되지 않았지만, 연애 태도에서의 개방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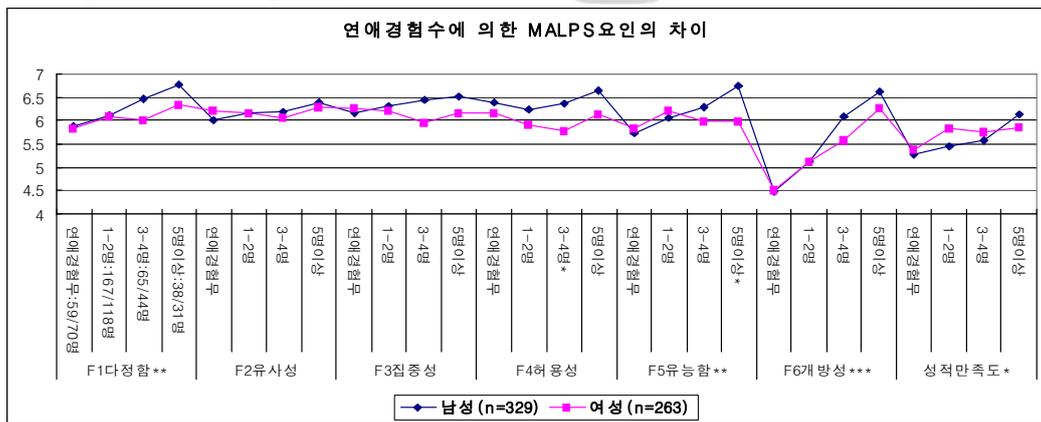


그림 10. 연애 경험 수에 의한 태도의 차이

고 적극적인 태도가 연애 경험 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가설3은 지지되었다.

### 성차

연애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어떤 태도 요인에서도 뚜렷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허용성에서는 연애 경험이 3-4명인 집단에서 남성의 평가가 여성보다 높았고,  $t(107)=2.03$ ,  $p<.05$ , 유능함에서는 연애경험이 많은 집단(5명 이상)에서만 남성의 평가가 높았다,  $t(67)=2.61$ ,  $p<.02$ . 연애경험 수의 증가는 개방성을 제외하면 여성의 연애 태도에서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애경험이 많은 여성은 적은 여성에 비해 개방성에서만 차이가 있는 반면, 남성의 연애 경험 수의 증가에는 개방성이 가장 상관이 있고, 다정함, 유능함과 약간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애 경험 수에 의한 하위 집단에서의 연애태도의 성차는 뚜렷하지 않았고, 연애 경험 수의 많고 적음에 의한 집단 차이가 더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서, 연애태도의 성별 유사성을 예상한 가설 4는 지지 되었다.

### 정치 문화적 성향에 의한 연애 태도 차이

#### 집단 간의 차이

정치문화적인 성향의 차이는 개방성과 주로 관련이 있었다. 진보적인 사람이 자신의 개방성을 높게 평가했고, 여성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더 분명하였다,  $F(2, 260)=14.03$ ,  $p<.001$ . 보수적인 여성이 보수적인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덜 개방적이었다,  $t(170)=2.75$ ,  $p<.01$ . 그 외의 유능함에서는 중립적인 여성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했다,  $F(2, 260)=5.41$ ,  $p<.01$ .

### 성차

진보집단의 남성이 여성보다 더 포용적이라고 평가한 것 외에,  $t(261)=2.04$ ,  $p<.05$ , 다른 요인에서는 성차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정치문화적 성향은 연애태도의 성차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정치문화적 성향에 의한 태도 차이에서도 가설4는 지지되었다.

### 경제적 능력에 의한 태도 차이

#### 집단 간의 차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집단이 다정함 요인을 높게 평가하였고,  $F(2, 589)=7.07$ ,  $p<.001$ , 이는 양성 모두에서 공통적이었다(그림 11). 유사성과,  $F(2, 326)=7.48$ ,  $p<.001$ , 집중성에 있어서,  $F(2, 326)=3.61$ ,  $p<.03$ , 남성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른 요인의 집단 차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성적 만족의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589)=5.21$ ,  $p<.006$ .

### 성차

허용성 외에 성차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제력이 낮은 집단과,  $t(64)=2.57$ ,  $p<.02$ , 중간 집단에서,  $t(262)=2.38$ ,  $p<.02$ , 남성이 여성보다 자신을 더욱 포용적이라고(허용성의 점수가 높음) 평가하였다. 태도의 성차보다는 집단 차이가 역시 더 분명하였다.

### 자기 외모평가에 의한 연애 태도의 차이

#### 집단 간의 차이

자기 외모를 높게 평가한 남성의 다정함이 높았는데,  $F(2, 326)=5.23$ ,  $p<.006$ , 여성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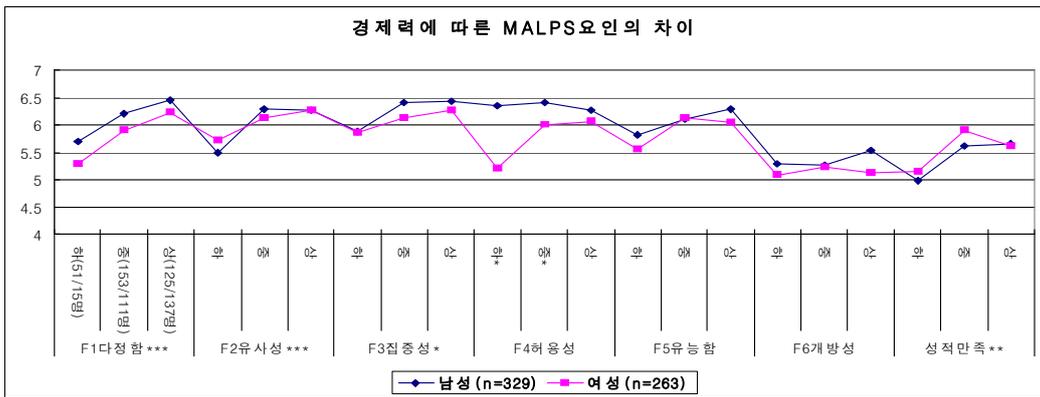


그림 11. 경제력에 따른 연애 태도의 차이

그렇지 않았다,  $F(2, 259)=2.07, p=ns$ . 남성은 다정함에서만 아니라, 제3요인인 집중성과 성적만족을 제외한, 유사성,  $F(2, 326)=16.12, p<.001$ , 유능함,  $F(2, 326)=18.80, p<.001$ , 허용성,  $F(2, 326)=2.93, p<.06$ , 개방성에서,  $F(2, 326)=6.81, p<.001$ , 외모의 평가가 높은 집단의 태도 점수가 높았다. 이에 비해 여성은 연애 태도에서 외모 평가 집단 간의 어떤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그림 12에서처럼 남성 집단 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서 외모 평가는 오히려 남성의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성차**

외모를 낮게 평가한 집단에서는 어떤 연애 태도의 성차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간 집단에서도 허용성의 경우에만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t(331)=2.68, p<.01$ . 반면 외모 평가를 높게 한 집단에서는 비교적 성차가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유사성,  $t(186)=2.04, p<.05$ , 허용성,  $t(186)=2.29, p<.03$ , 유능함,  $t(186)=2.20, p<.03$ , 개방성에서,  $t(186)=2.30, p<.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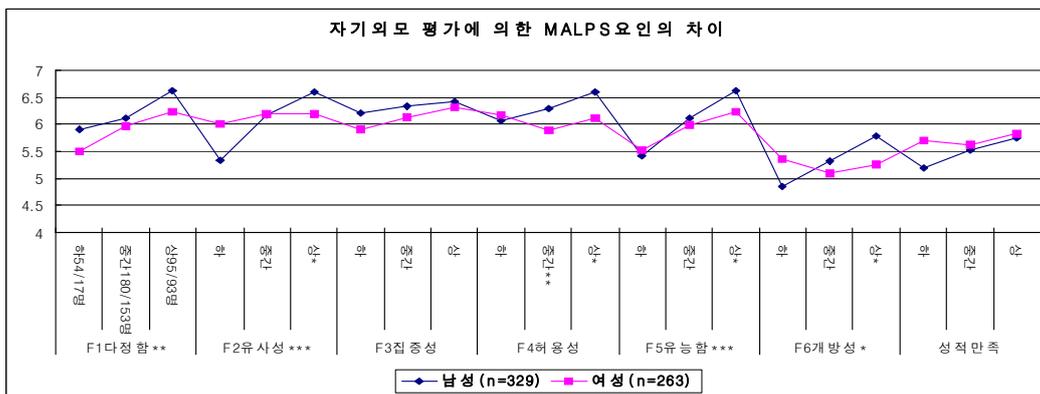


그림 12. 외모 평가에 의한 연애 태도의 차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했다. 성적 만족에 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모 평가 X 성별의 상호작용**

이원분산분석(factorial ANOVA) 결과, 유사성 요인에서 외모평가와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2, 591)=3.74, p<.03$ .

**외모만족도에 의한 연애 태도의 차이**

**집단 간의 차이**

외모 평가에서와 비슷한 집단 차이 패턴이 외모만족도의 하위 집단들에서도 나타났다. 자기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정서적인 면에서 중요한데(Burns & Farina, 1987; Mathes & Kahn, 1975), 남성은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다정함,  $F(2, 326)=6.90, p<.001$ , 유사함,  $F(2, 326)=16.88, p<.001$ , 허용성,  $F(2, 326)=5.69, p<.004$ , 개방성,  $F(2, 326)=9.48, p<.001$ , 성적만족을,  $F(2, 326)=4.98, p<.007$ , 높게 평가한 반면, 여성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여성에서는 외모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집중성이 높았다. 유능함의 요인에서는 양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가 나타났다,  $F(2, 589)=10.40, p<.001$ .

**성차**

외모 불만족 집단에서 남성의 집중성이 더 높은 것을 제외하면,  $t(203)=2.65, p<.01$ ,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중간 집단에서도 허용성에서만 남성이 더 높았다,  $t(167)=2.23, p<.03$ . 외모 만족 집단에서는 유사성,  $t(216)=2.00, p<.05$ , 허용성,  $t(216)=2.93, p<.004$ , 개방성에서,  $t(216)=.004$ , 남성이 높게 평가하였다. 외모 평가와 외모만족도에 의한 집단들에서는 성차가 분명하지 않았다.

**외모만족도 X 성별의 상호작용**

이원분산분석(factorial ANOVA) 결과, 유사성 요인과,  $F(2, 591)=3.68, p<.03$ , 개방성 요인에서,  $F(2, 581)= 3.81, p<.03$ ,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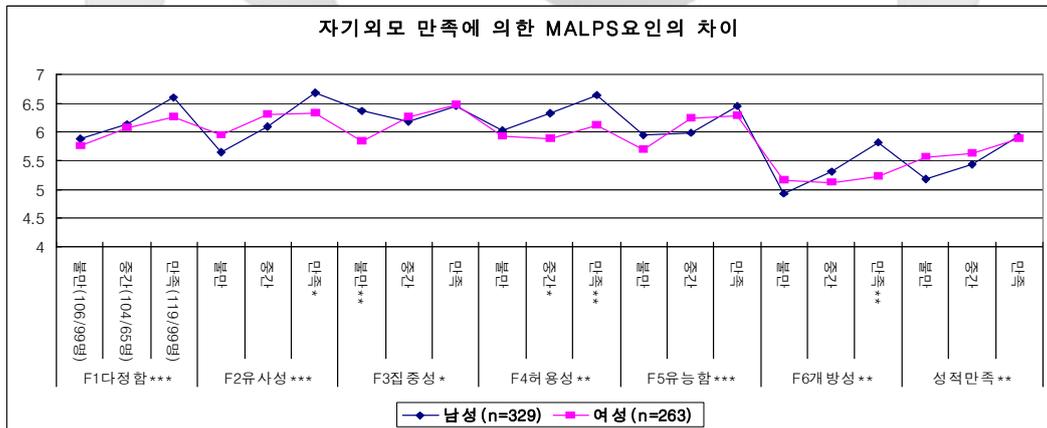


그림 14. 자기 외모 만족도에 의한 연애 태도의 차이



21.80,  $p < .001$ .

### 성차

허용성의 요인에서 혼전순결을 중요하지 않다고 한 집단과,  $t(210)=3.43, p < .001$ , 보통으로 한 집단에서만,  $t(191)=2.85, p < .01$ , 남성이 높게 평가했을 뿐, 다른 요인들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아서, 혼전순결을 중시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연애태도에서 뚜렷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남녀주도권에 따른 연애 태도의 차이

대부분의 경우, 양성이 동등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람이 62.8%였고, 주로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고 평가한 사람이 33.6%이며 나머지의 비율은 아주 낮아서, 집단을 구분하기가 적당하지 않았다. 남녀 주도권에 대한 판단은 이번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가 아니었다.

## 논 의

### 개인 변인들의 성차와 집단 차이

이번 연구는 개인 변인들과 연애 태도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도 보여준다. 먼저 여성은 외모에 대해 남성보다 더 높게 평가했지만 외모의 만족도는 그만큼 높지 않았다. 남성은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경제력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하였다. 남성에게는 여성에 비해 보다 더 높은 경제력 수준이 요구되는 반면, 여성은 더 높은 외모 기

준과 자신의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인 외모만족도는 오히려 낮은 것으로(우경자, 2002; 이수경, 2002) 볼 수 있다.

경제력이 있는 남성이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두드러지게 많은 연애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며, 외모는 연애경험 수에서 중요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왔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연애에서 그 중요성이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연애경험 수에 있어서 여성에게 외모가 중요하지만, 경제력은 연애경험 수에 있어서 남성에게만 약한 영향이 있었을 뿐이었고, 외모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연애 대상의 선택에서 여성도 남성만큼이나 외모를 중시한다는 설명이(Feingold, 1990; Schmitt & Buss, 2001, Becker et al., 2004) 확인되었다. “남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 여성의 외모에 영향 받으며, 여성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남성의 외모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Pines, 1999).”

연애 상태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애인이 없는 사람들의 연애경험이 다른 어느 집단보다 적었는데, 이는 연애를 하는 사람만이 계속 연애를 하게 되는 연애관계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남성들은 남성이 더 주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남성이 관계를 주도하고 데이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전통적인 데이트 규칙을 더 따르고 있고(Maybach & Gold, 1994), 보다 성도식적인(sex-role schematic)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특성을 가졌을 것으로 볼 수 있다(Cyranowski & Anderson, 1998).

연애경험 수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

다 더 많은 애정 애착(romantic attachment)을 경험한다는 Dion과 Dion(1975)의 설명과는 다른 것이다. 그 원인은 첫째, 청소년 시절의 연애 경험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심한 우리나라의 상황 때문에 여성들이 애정 애착을 느낀 대상과 연애관계로 발전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 둘째, 연애관계에서 애착을 중시하는 정도에서의 성차와, 셋째, 어느 정도까지의 관계를 연애 경험으로 간주하느냐에 대한 판단에서의 성차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남성들이 여성보다 관계의 진전을 서두르고, 진전 정도를 과장하는 경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크다(Brook-Guun & Furstenberg, 1989; Walker, 1997). 남성의 경우, 일방적인 짝사랑을 연애관계로 보는 경향성이 있고, 여성의 경우 실패한 관계는 경험의 수에서 가급적으론 빼고 계산했을 수 있다.

#### 연애 태도에 있어서의 성차와 집단 차이

연애관계를 시작하는 데에서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현덕과 장근영(2005)의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연애대상으로서 MALPS상의 연애태도 점수가 높은 것이 선호되었지만, 연애경험 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개방성이었다. 적극적인 사람은 더 자신감이 있게 보이고(Nicotera, 1997),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남성이 여성에게 호감을 주며(Lemoine, 2004), 결국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연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Dion & Dion, 1975; Solomon, 1987). 그 외의 연애태도에서 연애 상대에 대해 다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남성의 연애에서 중요 변수였다.

연애 태도로서의 유사성에 있어서는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낮게 평가했는데, 이는 그들이 유사성의 대상이 없었거나 상실된 상태였으므로 낮은 점수가 당연한 것이다(유사성요인의 하위 분석은 부록 참조). 이에 비해 단기 애인이 없는 집단은 과거의 애인을 염두에 두고서 자신의 ‘연인으로서의 유사성’을 평가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애인과의 낮은 유사성이 불만의 원인이 되어 연애관계가 중단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Pines(1999)에 따르면 연애 상대끼리의 유사성은 다른 그 어떤 요인보다 관계의 지속성과 만족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허용성에 있어서는 여성이 자신들의 태도를 남성보다 포용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혼전순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반응을 보였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포용성은 성적인 문제가 관련이 적고, 여성의 성적인 문제는 단지 개방성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자신에 대한 태도와 자기 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포용성을 다르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이후의 연구가 요망된다.

이번 연구는 남녀 관계와 애정에 대한 연구들에서 관심을 두고 확인해야 할 여러 가지 변인들에 따른 성차와 집단 차를 확인하였고, 이런 결과를 통해 이후의 연구들이 방향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연애태도 연구의 결과는 연애 관계에서 남녀의 차이보다 유사함을 강조하는 사회구성이론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Pines, 1998; DeLamater & Hyde, 1998), 한 검토자의 비판에서처럼 자기보고식의 피상적인 설문지로 진화론적 관점의 가설을 검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

도 배제하기 힘들다.

연애경험 수의 평가에서는 연애경험 자체에 대한 개념의 성차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일방적인 관계를 연애경험 수에 포함했거나, 연애 경험수를 세는 데에서 만남 횟수의 기준이 남녀사이에 많이 다를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연애경험 수를 평가하는 데에서의 기준과 판단의 성차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을 위해 경제력에 대해서는 '연 소득이나 월 소득'의 기준을 사용하거나, 외모에 대한 평가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각 요인별로 보다 구체적인 가설을 세우고, 차이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이제 최초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겠다. 연애 대상을 선별하는 데에서 남녀의 기준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연애 태도에 있어서 사람들은 성별에 의한 차이보다 같은 성별 내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연애를 해본 사람이 안 해본 사람보다 더 다정하고, 상대와 유사한 존재로 자신을 평가하며, 조금 더 관계에 충실하고자 한다. 정치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보다 혼전순결을 더 많이 중시하고, 남자가 좀 더 주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연애 태도 자체에 있어서는 그리 다르지 않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주 조금 더 연애 경험을 하고, 외모가 좋은 사람들은 더 많은 연애 경험을 하게 되지만, 남성에게 외모가 더 많은 영향을 준다. 또 외모가 나은 사람들이 더 다정하고, 상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더 유능하

며,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연애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애경험 수가 많을수록 성을 중시하게 되고, 성을 중시하는 사람이 외모도 높게 평가하였고,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남녀주도권의 대한 평가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으로 답변이 중간인 '동등하게 주도'로 몰린 것으로 판단된다. 혼전순결을 중시하는 사람과 중시하지 않는 사람은 서로 비슷한 비율로 분포했으며, 개방성에서 많은 차이가 났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개략적이지만 경험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보다 엄밀한 이후의 연구들에 의해 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더라도 말이다.

## 참고문헌

- 강신영, 정태연 (2001). 사랑에서 관계지위와 성별에 따른 개인적 및 관계적 특성에서의 차이: 남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1), 1-21.
- 권아현 (2000). 애착 유형에 따른 자기상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광은, 이위갑 (2005). 연애 관계에서 성인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33-247.
- 김나리 (2001). 대학생의 이성 관계에서 애착이 갈등 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기분 조절 기대치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민, 장은주, 박광배 (1991). 연애 중인 커플의 애착 성향 비교: '선택가설'에 대

- 한 검증.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초록.
- 우경자 (2002). 여성의 외모주의와 성형의료산업.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성, 한덕웅 (2005).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63-184.
- 이수경 (2002). 사춘기 여학생의 신체성장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기존중감, 의복태도 형성모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 (2002). 애착과 사랑양식 및 관련 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4), 93-111.
- 주현덕, 장근영 (2005). 한국 대학생들의 연애타도의 탐색적 연구: '연인으로서의 나(내 애인) 척도(MALPS)'의 타당성 검증. 미출판 논문.
- 함인희 (2001). 배우자 선택 양식의 변화: 친밀성의 혁명? 가족과 문화, 13(2), 3-28.
- 홍대식 (1996). 한국 대학생의 사랑스타일과 이성상대 선택준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2), 81-110.
- 홍대식 (1998). 데이트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99-226.
- 홍대식 (2002). 연애와 결혼의 심리학. 청암.
- Barash, D. P., & Lipton, J. E. (2001). *The Myth of Monogamy*. W. H. Freeman and Company Inc.
- Becker, D. V., Sagarin, B. J., Guadagno, R. E. Millevoi, A., & Nicastle, L. D. (2004). When the sexes need not differ: Emotional responses to the sexual and emotional aspects of infidelity. *Personal Relationships*, 11, 529-538.
- Berscheid, E., & Walster, E. H. (1969). *Interpersonal Attraction*.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
- Burns, G. L., & Farina, A. (1987). Physical attractiveness and self-perception of mental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161-163.
- Buss, D. M. (1999). Human nature and individual differences : The evolution of human personality. In L. A. Pervin, & O.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31-56). New York, NY: Guilford Press.
- Buss, D. M. (1994). *The Evolution of Desire*. Basic Books. New York.
- Buss, D. M., & Barnes, M. (1986). Preferences in human mate s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59-570.
- Butters, J. W., & Cash, T. F. (1987).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women's body-image dis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889-897.
- Cochran, S. D., & Peplau, L. A. (1985). Value orientation in heterosexual relationship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9, 477-488.
- Cyranowski, J. M., & Anderson, B. L. (1998). Schemas, sexuality, and romantic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364-1379.
- DeLamater, J. D., & Hyde, J. S. (1998). Essentialism vs. social constructionism in the study of human sexuality. *Journal of Sex Research*, 35, 10-18.
- Diamond, J. (1997) *Why is Sex Fun? The Evolution of Human Sexuality*. Orion Publishing Group

- Inc.
- Dion, K. L., & Dion, K. K. (1975). Self-esteem and romantic love. *Journal of Personality*, 43, 39-57.
- Dion, K. L., & Dion, K. K. (1973). Correlates of romantic lov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51-56.
- Feingold, A. (1992). Gender difference in mate selecting preferences: A test of the parental investm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2, 125-139.
- Feingold, A. (1990). Gender difference in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romantic attraction: A comparison across five research paradig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81-993.
- Fisher, H. E. (2004). *Why We Love*. Henry Holt and Company. NY.
- Fisher, H. E. (1994). *Anatomy of Love*. W. W. Norton & Company. NY.
- Greitemeyer, T. (2005). Receptivity to sexual offer as a function of sex, socioeconomic status, physical attractiveness, and intimacy of the offer. *Personal Relationships*, 12, 373-386.
- Harris, J. R. (1999) *The nurture assumption: Why children turn out the way they do*. N.Y.: Touchstone.
- Kenrick, D. T., Groth, G. E., Trost, M. R., & Sadalla, E. K. (1993). Integrating evolutionary and social exchange perspectives on relationships: Effects of gender, self-appraisal, and involvement level on mate selection criteri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951-969.
- Kimura, D. (2000). *Sex and Cognition*.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 Leigh, B. C., & Aramburu, B. (1996). the role of alcohol and gender choices and judgements about hypothetical sexual encounter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6, 20-30.
- Lemoine, L. (2004). *Séduire*. Editions Robert Laffont, Paris. 유혹의 심리학(이세진 역, 2004). 북폴리오.
- Martin, C. L. (1987). A ratio measure of sex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489-499.
- Mathes, E. W., & Kahn, A. (1975). Physical attractiveness, happiness, neuroticism,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Psychology*, 90, 27-30.
- Miller, G. (2000). *Mating Mind: How sexual choice shared the evolution of human nature?* Brockman Inc.
- Nicotera, A. M. (1997). *The Mate Relationship*.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 Osgood, C. E., Suci, G. J. & Tannen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Il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Pines, A. M. (1998). A prospective study of personality and gender differences in romantic attraction.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25, 147-157.
- Pines, A. M. (1999). *Falling in love*. Routledge. New York.
- Pronin, E., Kruger, J., Savitsky, K., & Ross, L. (2001). You don't know me, but I know you: The illusion of asymmetric insi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639-656.
- Schmitt, D. P., & Buss, D. M. (2001). Human

- mate poaching: Tactics and temptations for infiltrating existing mate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894-917.
- Small, M. F. (1992). The evolution of female sexuality and mate selection in humans. *Human Nature*, 3, 133-156.
- Solomon, Z. (1987). Self acceptance and the selection of a marital partner: An assessment of the SVR model of Murstei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4, 1-6.
- Tavris, C. (1992). *The Mismeasurement of Women*. Simon & Schuster. New York.
- Townsend, J. (1998). *What Women Want - What Men Want*.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Tzeng, O. C. S. (1993). *Measurement of Love and Intimate Relations: Theories, Scales, and Applications for Love Development, Maintenance, and Dissolution*. Praeger Publishers, CT.
- Umberson, D., & Hughes, M. (1987). The impa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achie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227-236.
- Wilson, A. E., & Ross, M. (2000). The frequency of temporal-self and social comparisons in people's personal apprais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928-942.

K C I

## How Are They Different?: Gender and Group Differences in Romantic Relationships and Love Attitudes

Hyun-Duk Joo

Se-Ni Park

Yonsei University

In this study, investigating the differences among subgroups by personal variables(Study1) of 1283 participants, such as dating status, the number of romantic relationship experiences, conservative-liberalistic tendency, economic status, appearance, satisfaction of appearance, importance of sex, possession of initiative in relationships, and importance of premarital virginity, we try to find out whether “the richer the men, and the prettier the women, the more romantic relationships they get.” We also try to find out which romantic relationship attitude is more important in romantic experiences, and whether there exist greater similarities in love attitudes between genders than the differences(Study2). Findings show that richer men have just little more experiences, but prettier women have not more experiences than those who are not. Appearance was a more important factor in men's romantic relationships than in women's. Among love(romantic) attitudes, the openness, which means active, open-minded to sexuality, outgoing, liberal attitude, was the most critical one in love relationships. And the gender differences in love attitudes were not significant, which supported the our hypothesis 3.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seem to support the explanations of Social Construction Theories. But the these results do not contradict to the evolutionary psychology, which emphasizes that inclination and ways to share property is as important as having property in relationship with partners.

*Key words* : Romantic relationships, MALPS, love attitude, evolutionary psychology, social construction theory

1차 원고접수: 2005. 11. 20

심사통과접수: 2005. 12. 22

최종원고접수: 2005. 12. 26

부 록

연인으로서 나(내 애인) 척도(MALPS)의 요인별 설명

alpha	단 어 쌍	가중치	요인 설명
요인1	.802	자상하다 - 무뚝뚝하다	다정함 (tenderness)
		다정하다 - 냉정하다	
		로맨틱하다 - 뻣뻣하다	
		성격 원만하다 - 성격 모나다	
요인2	.775	상대와 비슷하다 - 상대와 다르다	유사성 (similarity)
		수준이 맞다 - 수준이 맞지 않다	
		동질적이다 - 이질적이다	
		만족하다 - 불만족하다	
요인3	.709	진지하다 - 진지하지 않다	집중성 (commitment)
		헌신적이다 - 헌신적이지 않다	
		열중하다 - 딴 데 신경 쓴다	
		성실하다 - 불성실하다	
요인4	.687	능력 있다 - 무능하다	유능함 (competence)
		똑똑하다 - 멍하다	
		독립적이다 - 의존적이다	
		합리적이다 - 불합리하다	
요인5	.638	너그럽다 - 꾀하다	허용성 (permissiveness)
		이해심 많다 - 이해심 부족하다	
		자유를 존중하다-소유지배적이다	
		포용적이다 - 비판적이다	
요인6	.639	성적으로 개방적이다 - 성적으로 보수적이다	개방성 (openness)
		적극적이다 - 소극적이다	
		진보적이다 - 보수적이다	
		외향적이다 - 내성적이다	
+ 1a		성적으로 만족하다 - 성적으로 불만족하다	성적만족도를 추가로 측정하였음

주: a는 추가적 요인으로서 적용 대상에 따라 다른 필요 요인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음. 상담 현장에서 사용자가 내담자나 피험자의 특성 파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인을 추가하여, 사전조사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